

“정보 관리 나도 전문가”... 스님 대상 교육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재관리 교육 ‘인기’

“스님, 탕화를 보존할 때 모퉁이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퉁이 보호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찰의 보일러 배관 스펀지 부분을 잘라 모퉁이에 끼우면 됩니다. 스펀지는 화학제질이기에 스펀지 부분을 먼저 중성인 한지로 둘러싸주세요.”

“절집에서는 불상의 경우 보통 수장고에 그대로 넣어 놓는데, 개별로 싸서 보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사찰에 산재한 정보를 관리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뜻깊은 교육의 장이 열렸다. 불교계 최초로 문화재 관리 실무교육이 실시 된 것.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이 4월 9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개최한 다량문화재 소장처 관리자 유물관리교육에서는 스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신화용 문화재 보관·이송 전문가의 ‘성보문화재 포장과 유물취급’ 강연과 실습현장에서 스님들은 직접 문화재 보관법을 익혔다.

신화용 씨는 “문화재를 보관 할 때 무심코 비닐과 같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지를 활용해 충격보호재 등을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며 한지를 활

용한 방법을 시연했다.

실습에 참여한 화계사 교무 동재 스님은 “그동안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다”며 “절집 안에는 대대로 전수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전통과 현대 보존전문가들의 보존기술을 함께 배우려져 보다 성보문화재가 오래 보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최영용 동화사 성보박물관 계장은 “사실 사찰에서 보존관리에 신

45명 스님 참석해 높은 관심 보여 성보박물관 관계자 “실무에 도움”

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워낙 다양하다. 전공자라도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종합적인 보존 방법을 듣는 것이 유용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교육으로 진행되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도진영 고려대 색채 연구소 교수의 ‘실외 석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강의와 함께 김태식 연합뉴스 문화재 전문가와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의 ‘절 밖에서 바라보는 절’과 ‘문화재 보호의 법적근거’ 강연도 진행됐다.



스님들이 경전류를 보관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이날 스님들은 한지를 이용한 문화재 관리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도진영 교수는 “석조문화재의 풍화는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육안 진단 및 정밀 진단으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을 강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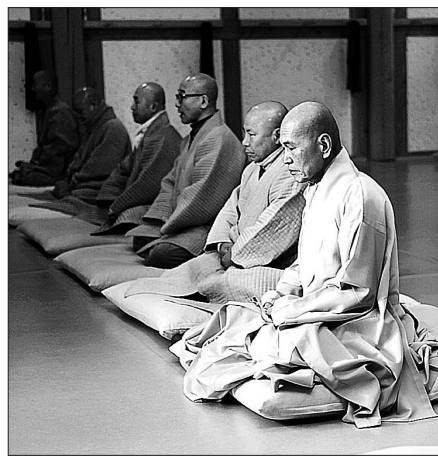
이어 도 교수는 다양한 석조문화재 피해 사례를 담은 사진자료를 통해 스님들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석조문화재 훼손 현상을 설명했다.

김태식 연합뉴스 기사는 강연에서 “성보문화재는 불교계 뿐만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불교계도 지정문화재 만큼은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료의 활용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보박물관 유물관리교육에서 신화용 씨가 가사와 같은 천조직 문화재를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백양사 고불선원 참석 모습

득도 해탈’,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탄호스님이 ‘명정시대의 선미술과 선사상’, 조태성 전남대 교수가 ‘선시와 감성-진공과 실제의 역설’, 박규리 동국대 강사가 ‘선시의 본질과 영역에 대한 일고찰’, 김미선 청주대 교수가 ‘불가의 심우주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신규택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연구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선불교 연구를 발전시켜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신라 최대 불교寶庫 영축사지 4차 조사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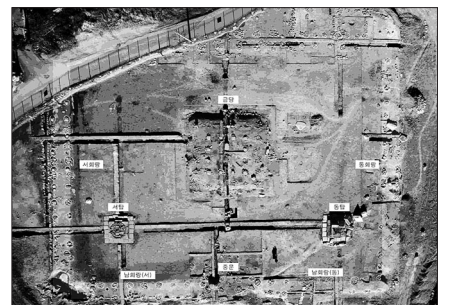
통일신라 최대가람인 ‘울산 영축사지’ 4차 조사가 4월 6일 시작됐다.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5개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영축사(靈鷲寺)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조사는 4개월 간 울주군 청량면 영축사지에서 이뤄지며, 석탑 부재의 정밀 조사와 탐지 하부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박물관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영축사가 금당지를 중심으로 쌍탑이 위치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가람배치인 것과 영축사 규모가 경주 감은사에 버금감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금당지 복원 강당지 확인으로 영축사지 가람배치가 강당-금당-동·서탑-중문-회랑으로 이루어진 최대 가람이었음을 밝혀냈다.

영축사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



울산 영축사지 항공사진

(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된 사찰로 출토 유물로는 통일신라 금동불상(金銅佛) 2점, 석불좌상(石佛坐像) 1점, 약사불이 장식된 광배(光背)편 등이 나왔다.

신광섭 관장은 “영축사지의 전모를 밝혀 향후 이뤄질 문화유적 보호·보존정비 및 종합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각사상연, ‘용성·한암 스님’ 학술대회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평창 월정사(주지 퇴우 정법)와 4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용성과 한암, 그 지성의 원류를 찾아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동국대 교수 허명 스님의 사회로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 능인불교대 교수 자현 스님의 ‘계장의 분석을 통한 선계이적 관점 분석’, 백도수 능인불교대 교수의 ‘한암의 계율 인식 고찰’, 이자량 동국대 교수의 ‘용성 율맥의 성격 및 전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마성 스님의 ‘용성의 선농일치 사상’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한암과 용성의 사회참여와 불교실현의 방식 비교’,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용성선사 어록에 나타난 선사상’,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한암일발목을 통한 한암선의 특징 고찰’, 이상하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의 ‘한암선의 언어적 특징’, 김종인 경희대 교수의 ‘대각교 운동의 성격과 근대성’ 발표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선(禪)과 인문학의 만남, 새롭게 살핀다

한국선학회 4월 25일 춘계학술세미나서 종합 고찰

한국문화 속의 다양한 인문학 분야와 선불교의 접점을 살펴보는 학술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가 4월 25일 개최하는 ‘선(禪)의 대지위에 영글어가는 온갖 곡식’ 학술세미나가 그것이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택)는 25일 오후 1시 연세대 문과대 1층 강의실에서 사상과 역사, 사회와 명상, 문학과 예술 등 총 3개 섹션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먼저 학술세미나 개최식에서는 전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선과 사상·역사’ 주제로 열리는 섹션 1에서는 동국대 교수 해원 스님의 사회 하에 장은화 동국대 강사가 ‘송산선의 공안 수행과 인가제도’,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가 ‘간화선의 현실인식과 대응’, 동국대 대학원 과정의 한창호 씨가 ‘청화 염불

선 행법과 무문관 공안을 통한 교화활동 비교’,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원 영석 스님이 ‘선교결사의 계승과 소림통방정안’, 조계종 교육아사리 회청 스님이 ‘백파의 무자화두 참구’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박희승 교수의 간화선의 현실인식

사상 역사·사회·문학 3분야

현대적 응용 및 발전방향 논의

과 대응은 근현대 선의 흐름 속에서 간화선을 필두로 한 선불교가 어떻게 변용됐으며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핀다.

‘선과 사회·명상’ 관련 논문을 다루는 섹션 2는 최근 각광받는 명상문화의 근간

인 선불교 사상을 살펴보고 현대적인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사회 하에 먼저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류상운 씨가 ‘조사선에서 원용하는 경영의 위기관리’, 동국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전무규 씨가 ‘일상생활에서 사법적 수행의 활용’, 최현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가 ‘음악명상과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과 접점’, 김성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가 ‘글쓰기 명상의 내적 드러내기와 치유의 관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진우기 씨가 ‘현대 선수행에서 염(사미)의 활용과 변용: 서양불교와 한국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선과 문학·예술’ 관련 논문을 다루는 섹션 3은 전재강 안동대 교수의 사회 하에 이강옥 영남대 교수가 ‘설화에 나타나는

불교, 정말 사회적 역할 잘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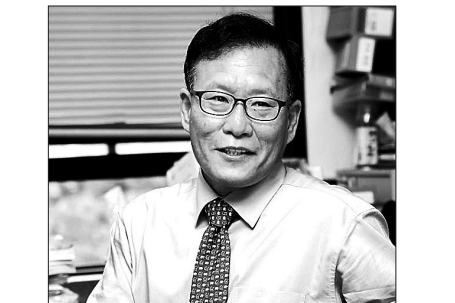
불교평론 열린논단, 조성택 교수 나서

불교평론(주관 홍사성)은 4월 16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함께 열린논단 연속 기획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의 세 번째 주제인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진행한다.

세 번째 논단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 <오른쪽 사진>가 나서 한국불교의 모습을 물질적 구체활동과 정신적 구체활동으로 나눠 진단한다.

조성택 교수는 “현실사회는 늘 빈곤이나 질병, 재난과 같은 고통에 노출돼 있고 이는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는 불교가 담당해야 할 분야”라며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불교가 담당해야 할 분야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 때,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불교는 바른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평론 측은 “이미 결론이 뻔한 이야



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부정적 결론을 내리는 현상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돌파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최근 실천적 인문공동체 ‘화쟁이가 데미’를 설립해 뜻있는 지식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윌루퍼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서/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정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쟁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지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중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현/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라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적 연구
입법계통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구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분회해
천태지자·윤서주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제
이원정 편/목재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북تاب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